

메리

고

어라운드

선한글

qweasz.iopklm.rachel@gmail.com

등장인물

환유상 22 / 대학생.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완만한 성격의 대학생.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굳이 없던 의욕상실 22살.

김혜인 23 / 대학생. 삶의 의지가 약한 유상과는 달리 꾀가 많고 활발한 성격의 대학생.

종만 22 / 대학생. 유상의 둘도 없는 친한 친구. 유상과는 달리 불같은 성격으로 가끔 유상을 답답해 할 때도 있지만 마음만은 따듯한(?) 놈.

지현 22 / 대학생. 혜인의 룸메이트. 세상 물정 모르는 혜인을 걱정하면서도 잘 챙겨주고 달래주는 혜인의 지원군.

민선 22 / 대학생. 유상의 전 여자친구.

할머니, 유상의 부모님

스토리

여자친구와의 이별 후, 삶의 의지가 약해진 유상. 그리고 어느새도 모르게, 하루를 반복하게 되는 타임슬립에 빠진다. 매일 매일이 같은 저주같은 하루. 그는 그 속에서 자신만의 하루를 온전하게 즐기게 되는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는 없을 것 같던, 연인이 되고 싶은 인연이 찾아온다.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유상. 그는 단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을 걸고,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마음 먹는다.

제작 의도

여기, 매일 같은 날을 다르게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매일 다른 날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 다시한번 생각 해 보자. 우리의 날은 어제와 어떡해 다른지. 모든 것이 달라 질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는 물과 같은 것 이라는 것을.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행위를 하고 시간에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시간이 멈추어있어도 삶은 흐를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운명과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무엇. 우리도 이제 돌아 봐야 한다. 우리들의 운명은 시간에 흘러가는 중인가요? 모든 이들의 삶에 봄비같은 이야기가 되기를....

marry go around.

1. 유상의 방

3월 15일 유상의 방
텅 빈 눈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유상.

창문의 커튼을 친다.
방 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 온다.
떠 있는 먼지들이 보일 만큼 고요하다.

전 날의 잔상이 보이는 책상 위에는
전공 서적들이 한두개씩 펼쳐져 있어 어지러움을 더한다.

유상은 그런 책상 위를 보고는 한숨을 쉰다.

2. 화장실

유상 나레이션.
해가 떠도, 달라지는 건 없다.

샤워를 마친 유상.
증기로 가려진 거울 앞에 선다.

유상 나레이션
특별한 의미는 없다.

손바닥으로 거울의 증기를 닦아낸다.
우울해 보이는 얼굴이 거울로 비춰진다.

유상 나레이션
오늘 내가 나인게, 무엇보다 익숙하니까.

3. 주방

아침 준비로 분주한 주방
유상 엄마는 식사를 준비 중이다. 국 간을 본다. 만족스럽지 않다.
이내 주방으로 들어오는 유상을 발견한다.

유상엄마
아직 국 덜 됐는데,

유상
도와 줄게.

하며 부엌으로 다가가, 도마 위로 두부를 잡아 능숙하게 썰기 시작한다.

유상엄마
손은 씻었니?

유상
샤워 했어.

유상엄마
이제, 다 됐어. 넌 가서 숟가락이나 놔,

티비에는 뉴스가 흘러 나오고, 모자는 흘러 들으며 식사가 한창이다.

유상 엄마
이명 준비는? 잘 돼가 ?

유상
(무심) 마음의 준비만.

유상 엄마
다른 애들은 벌써 시작 했다는데,

유상
종만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했어.

유상 엄마
개는 그 성적에 어떡해 너랑 같은 대학을 갔니?
내가 너 고딩때 학원비만 얼마를 투자 했는데.

유상
종만이는 체육 특기생으로 간거잖아. 개가 턱걸이를 그렇게 잘해.

유상 엄마
너도 그러면 운동이나 시킬 걸 그랬다....

때 마침 뉴스에서는 비행기 지연 속보가 흘러 나온다.

유상 엄마
안 그래도 아빠한테 연락 왔어. 이들은 꿈쩍 못하나 봐.

유상
고생 하시네

유상 엄마
고생은 무슨, 공항에서 호텔도 제공 한다던데, 이번 기회에 잘 쉬다 오면 좋지 뭐.

유상
원래 일 없이 가만히 있는게 제일 힘든거야 엄마.

유상 엄마
하긴, 일이 전부인 사람인데... . (사이) 그나저나 무슨 폭설이니

유상
(엄마의 말을 끊고 들어오면) 그러게, 삼월이면 초 봄인데.

유상 엄마

(자기가 하려던 말을 어떡해 알았냐는 듯 얼떨떨하다) 그래....

유상

맛 있네, 청국장.

하며 유상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인다.

기묘한 느낌이 드는 유상의 엄마.

4. 버스 정류장

귀에 이어폰을 꽂은채 멍하니, 버스를 기다리는 유상.

종만이 뒤에서 유상을 놀래킨다.

종만

야!

유상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왔냐.

종만

그냥 온게 아니지. 무엇인가 함께 왔지 나랑.

유상

(귀찮다는 듯) 그랬냐.

종만

형, 영장 나왔다.

유상

축하해,

종만

축하는 무슨 시발... 벌써 우리가 군대를 간데. 대학생 되서 이제 좀 놀라고 하니깐 무슨 군대야.... 너는 아직이냐?

유상

응

종만

너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동반 입대 할까?

유상

아마, 나는 좀 오래 기다려야 될거야.

종만
왜? 너 빠른 아니잖아.

유상
그런게 있어. 야, 버스온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 먼저 타려고 하던 유상은,
깜빡 했다는 듯, 지갑에서 이천원을 꺼내 종만에게 건네 준다.

종만
(당황) 뭐냐?

유상은 종만의 말을 무시하고 먼저 버스에 오른다.
뒤에서 따라오던 종만은 버스카드를 짚고 타려고 하자, 잔액이 부족하다.

종만
어라.

바지에서 지갑을 찾는 종만, 없다.

버스 기사.
학생, 타?

종만
네, 타죠. 그럼.

당황하던 종만은 손에 들린 이천원으로 차비를 낸다. 그리고 유상에게 다가 간다.

종만
야, 나 지갑 안가져 왔나 봐.

유상
(무관심) 그랬냐.

종만
근데 이천원 뭐냐. 일단 그걸로 냈는데.

유상
저번에, 내가 빌린거.

종만
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이천원이야. 이만원도 아니고, 근데 언제?

유상
기억 못하냐? (하며 창가를 보는)

종만

몰라.... 암튼 땡큐. 덕분에 살았네.

종만의 대답을 씹고 창문을 바라보는 유상

옆에서는 종만이 낮게 재잘 거리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침 이슬에 뿌연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형태가 희미하게 지나다닌다.

유상은 그런 창밖을 멍 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손으로 속속 창문을 닦아본다. 깔끔하게 보이는 창문 밖.

역시나 그렇듯.... 똑같은 창문 밖 풍경이다.

썩썩한 표정의 유상은, 창문 밖을 보기를 포기한 채, 창문에 기대버린다.

유상 나레이션

오늘로서, 301일째.

같은 날이다.

탑로그 올라간다

` MARRY GO AROUND `

5. 유상의 과거

아침 시간, 유상 엄마와 유상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다.

유상엄마

너 어제 몇시에 들어왔어. 너 어제 민선이랑 같이 있었지? 개랑 같이 술마셨어?

유상

(꺾끄럽다는 듯이) 개랑 같이 마신게 아니라, 개 때문에 마셨어.

유상엄마

왜? 둘이 싸웠어?

유상

아니, ... 헤어졌어.

유상엄마

(청국장 간을 보며) 그래? 누가 찼어?

유상

...

유상엄마

니가 차였어? 너 이제부터 주말마다 축구 나가지 말어.
공은 그렇게 잘 차는 놈이 왜 사람한테는 이리저리 차이고 다녀?

유상
몰라….

유상엄마
언제 차였는데?

유상
머칠됐어,

유상엄마
너무 신경쓰지 말아. 원래 연애가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거야.

날카롭게 무언가 깨지는 소리. 두부 그릇이 떨어져서 깨졌다.

유상 엄마
아이고, 이를 어째.

유상
뭐야? 그릇 또 깬어?

유상은 엄마에게 다가간다. 허겁지겁 두부를 닦아 내는 엄마의 모습에 괜히
기분이 상한다. 김치 국물이 빠지지 않은 앞치마도 유상을 불편하게한다.
괜히 엄마가 안스럽다.
엄마는 그릇과 두부를 허겁지겁 주워 담는다.
그러다가 깨진 그릇 조각에 손가락이 베이고 만다.

유상
(짜증난다는 듯) 왜? 비었어? 또? 거봐, 칼질 할 때 또 쓸때 없는 말 하니까 그러는거 아니야.

유상엄마
아휴 따가워… 괜히 두부가 미끄러워서.

유상
(속상하다는 듯 엄마에게 다가가며) 뭐야 왜 대일밴드 안붙였어? 어제 사다 놔다고 그랬잖아.

유상엄마
그랬어? 어제 왜?

유상
엄마 어제도 손 베였잖아 여기….

엄마의 손을 잡고 상처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없다

유상

엄마, 어제도 여기... 똑같은데 다치지 않았어?

유상엄마
무슨소리야, 내가 어제 손 베일 일이 뭐가있어?

유상
(의아한 표정) 어제도 두부 썰다가... 딱 여기.

유상 엄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혼란한 유상을 뒤로하고
비행기 지연 뉴스 속보가 흘러 나온다.

유상엄마
안그래도 아빠한테 연락왔다. 비행기 지연이래, 이틀이나.
웬 폭설이니. 삼월이면...

유상 나레이션
... 초 봄인데...

하며 유상의 눈이 엄마의 눈과 마주친다.

유상
(혼란스럽다) ... 어제도 그랬잖아.

유상엄마
무슨 꿈을 꿨나. 왜 그래?

유상
엄마 오늘 며칠이지?

유상엄마
글쎄, 15일인가?

유상나레이션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6. 과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서 초초하게 종만을 기다리는 유상.
멀리서 종만이 뚝뚝 걸음으로 달려온다.

유상은 기다리지 못하고 종만에게 급히 달려간다.

유상
야, 너 영장 나왔냐?

종만
(당황) 그래 좋은 아침이다...

유상
영장 나왔냐고!

종만
어, 신검 받으러 오래.

유상
(망연 자실) 아 씨....

종만
왜, 너도 나왔냐? 우리 이참에 동반 입대나 할까.

유상
야, 그럼 혹시 너네 형 오늘 뭐하셔?

종만
우리 형? 오늘 우리 형 ,

종만, 유상 동시에
예비군 훈련...

종만
어떡해 알았데.. 야 아침에 형이 군복 딱 입고 나한테 영장 주는데 그거 기분 묘 하더라.

혼란스러운 표정의 유상. 이내, 종만의 지갑이 생각난 듯, 종만의 몸을 뒤지기 시작한다.

종만
뭐야, 어머. 뭐야 어딜만저 새끼야!

유상
(급하다) 야, 너 지갑은. 지갑은 가져왔어?

종만
뭐? 지갑? (주머니 뒤지다가) 없을리가. (응?) 잠깐만, (하며 가방을 탈탈 털어 본다.) ... 없네.

유상
말도 안돼...

유상 나레이션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7. 병원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유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유상은 왠지모를 불편함을 느낀다. 시계 때문이다. 이 곳을 전날도 전전 날도 와 봤지만, 저 시계의 날짜만이 유상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 듯 하다. 3월 15일. 포기하고 싶어진다.

의사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요. 계속 하세요.

유상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들이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하루가 리셋이 된다고 해야하나. 그러다 보니까... 사는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의사
(사이) 다른 증상들은요? 환각이나 환청이 들린다거나...

유상
그런건 없어요.

의사
요즘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유상(다른 옷)
이 병..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저한테는 무척 스트레스 거든요.

유상 (다른 옷)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들이,

유상 (다른 옷)
똑같은 대사를 매일 같이 반복해요..

유상(다른 옷)
살기가 싫어요 ...

유상(다른 옷)
우울증인 것 같아요.

유상(다른 옷)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네, 잘 안되는지, 한숨)

의사
혹시 최근에.. 심하게 충격을 받았거나, 그런 일 있어요?

유상

... 글썸요...

8. 병원 접수대

유상 나레이션
병원을 다니는 것은 그만 두기로 했다.

접수대. 약을 건네 받는 유상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의사
약을 꾸준히 드시는게 중요해요. 일주일치 넣었어요.

유상
(처방전과 약 봉지를 받는다. 헛웃음이 나오는 유상) 네...

유상 나레이션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친척을 하기는 쉬워도,

의사
다음 상담은 다음주 금요일로 해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유상 나레이션
미친 사람이 미치지 않은 척을 하기란, 쉽지 않다.

유상이 마지 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빠져 나온다 .

9 놀이 공원 회전 목마 앞

유상 나레이션
내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가 미쳤다고 인정하는 것 뿐이었다.

회전 목마의 사람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멍하니 보는 유상.
텅빈 눈으로 빙글 빙글 돌기만 하는 회전목마를 바라보기만 한다.
외롭게 남들의 행복을 부러워 하고 있다.

그리고 쓸쓸하게 앉아 있던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간다.
벤치 위에는, 유상의 이름이 적혀진 처방전이 놓여져 있다.

10. 유상의 꿈 속

꿈 속의 유상은 민선과 함께다.
레스토랑에서 민선과 함께 밥을 먹는 유상.
낮이다. 강한 햇빛이 민선의 어깨 너머로 가득하다.
민선의 얼굴도 햇살처럼 너무 밝아, 유상의 가벼운 마음이 녹아 내릴 듯 하다.

꿈 속 배경은 바뀌고, 두 사람은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다. 여전히 따듯한 날씨 서로의 얼굴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마당으로 뛰쳐 나가 물장난을 친다. 서로 행복해서 어쩔 수 없는 시간들.

11. 유상의 방

잠에서 일어난 유상은 졸린 눈으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본다.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시간 속에 갇혀버린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삶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유상의 심리들이 침대 위의 요동도 없는 유상에게 표현된다.

12. 학교 앞 편의점

편의점 안. 종만과 유상은 음식을 고르고 있다.
대화를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일방적으로 종만이 들떠있다.

종만

이번에 음대 신입생 찐다는데... 우리 쪽에 다리 놔 줄 사람 없을까 ?

종만은 투덜거리며 상품 옆에 높은 당첨행사 피켓을 무의식 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상은 종만의 말은 들은 척도 안하고 음식을 고르는 중이다.
진열대 앞에서 멈춰 서더니, 끝에서 두번째 과자를 집어든다.

종만

현종선배는 어때? 그 형 성악과지? ... 아 복학생은 신입생이랑 안친한가.

유상

(고른 음식을 말기며, 다른 과자 품번을 확인한다.) 야, 이거다.

종만

(바꾼 과자를 받으며) 근데, 나 그 선배랑 안 친한데. 맨날 축구 같이하제. 잘 하지도 못하면 서.... 솔직히 그 덩치로 골키퍼 밖에 못하잖아. 근데도 기는 졸라 썩요.

유상

(종만에게 줬던 과자를 뺏더니, 똑같은 종류의 과자를 다시 안겨 준다.) 야, 그거 아니고 이거 먹어.

종만

뭐야. 똑같은데? 야 그냥 둘 다 사, 하나 가지고 양이 차냐? 그러니까 그냥 학식 가져가자니까.

유상

맨날 먹는 그놈의 학식... 안 질리냐?

하며 유상은 고른 상품들을 계산대로 가져간다.

종만

메뉴야 맨날 바뀌는데 질리는게 어디있어, 복불복 이지.

유상
이렇게 주세요.

직원
네

종만
암튼, 진짜 다리 없을까? 소개팅은 바라지도 않아. 미팅. 미팅 딱 좋네. 너 교육학이면 인맥 좀 있을거 아니야. 내 처지 알잖아. 나 진짜 대학 와서 맨날 옥수 뽑으면서 살아..

유상
알겠어. 내일 한번 물어볼게.

종만
약속했다.

유상
(귀찮다.) 어, 내일.

종만에게 귀찮다는 듯 대답을 넘겨버린다. 유상의 신경은 온통 계산대에 올려져 있는 과자. 앞에서 계산하던 직원, 계산 도중.

직원
손님, 축하드려요. 이 제품, 원 플러스 원 행사 당첨 되셨어요. 똑같은 제품 하나 더 가져오시면 되세요.

유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가져와 같은 종류의 과자를 조심스럽게 카운터에 올려 놓는다.

직원은 응? 하더니, 그 과자를 스캔한다.

직원
손님, 이 제품도 같은 행사 당첨 되셨는데...

종만
오, 왠 황재.

유상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쪽 손에 들고 있던 과자를 카운터에 올려 놓는다.

종만
너 뭐냐.. 사기꾼이냐?

유상
닥쳐. 그럼 이건...

직원

아... 네. 잠시만요. (바코드를 찍으면) 손님, 이 제품은 사은품 당첨 되셨는데요.

유상

(아싸...!)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은품이 뭐죠?

13. 편의점 밖.

종만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눈 앞의 사은품들을 본다.

유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는다.

종만

어째.. 산 거 보다 받은게 더 많은 것 같다.

유상

그거 안먹냐?

종만

아니.. 먹어... 근데.. 이거 무슨 뜻이지?

하며 종만이 편의점 직원을 바라본다.

종만

재 우리 학교 앤가? 우리한테 관심있어서 그러냐?

유상

없어. 그거 안먹지?

종만

아니.. 먹는다니까. 그거 사은품 그거도 괜히 의미있는거 아니야? 잘 찾아 봐. 번호 같은거 없어?

종만이 가르키는 곳에는 사은품으로 받은 하트 모양의 사탕...

유상은 사탕을 지긋이 보다가,

유상

버릴거야.

종만

야, 미쳤냐. 남의 마음을. 아무리 공짜라도 그렇지 버리기는 왜 버리냐. 정민선 줘!

유상

못 줘.

종만

왜? 또 니 사랑은 공짜가 아니야? 뭐, 얼마내는데 한달에? 정기권이야?
아무튼 여친 있는 놈들은 꼭 그렇게 돈 냄새를 풍겨요.

유상

(무심하게) 헤어졌어.

종만

뭐? 왜?

유상

바람났어. 김현일이랑.

종만

김현일? 너네 과대 그 김현일이랑 바람이 났다고? 누가?

유상

(짜려본다)

종만

와... 개 진짜 쌍년이네. 헤어지제? 언제?

유상

한 일주일 됐나.

종만

어제가 화이트데이 있었는데... 사탕은 받았냐?

유상

안 주더라. 그건 좀 서러웠다.

종만

내가... 사줄까. 사탕이 좀 그러면, 옛은 어때.

유상

(짜려본다.)

종만

흐흐흐 알았어. 미안. 내가 일부러 너 웃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나저나, 너 진짜 괜찮냐.
아무렇지도 아는거냐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거냐.

유상 나레이션

그래봤자 옛 일인데...

유상은 종만의 말을 무시하고 라면을 먹는다.

종만

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씬씬이 오고 간거래? 너무하네 진짜...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거 아니야. 아... 그것도 같은 학과.. 너 진짜 앞으로 학교 어떡해 다니냐. 야, 그 짤애 잊어. 내가 다른 존나 관찮은 애 소개시켜줄게. 너도 보란듯이 다른 애 끼고 다녀, 그럼 되잖아. 성악과 관찮지? 아...

개 때문에 밥 맛도 다 떨어지고.. 솔로 들어서 공상 말게 컵라면이 뭐냐?
그것도 편의점에서. 학식 가자. 형이 쓸게.

하며 일어나면

유상

너 돈 없어.

하자 다시 앉는다.

종만

아 그렇구나.. 내가 돈이 없구나. 서럽다 인생.

유상

서러운 인생이라도 있어서 좋겠다.

14. 유상의 과거. 학교 앞

3월 9일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한 유상은 반가운 얼굴로 강의실을 뛰쳐 나간다.
학교 앞, 추운 듯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고 유상을 기다리는 민선.
반가운 유상은 민선에게 뛰어 다가간다.

유상

(뒤에서 민선을 안으며) 많이 기다렸어?

민선

(굳은 목소리로) 아니,

유상

카페같은데서 기다리지. 날씨 추운데. 나 강교수님 수업인데 너 연락받고 중간에 나왔다. 강의 끝났지? 이대로 나 찢까? 그 동안 왜이렇게 바빴어. 보고싶어 죽는 줄 알았네.

민선

아니야, 나도 이제 곧 들어가 봐야 되.
잠깐 할 말 있어서 나오라고 한 거야.

유상

(차가운 민선의 목소리에 분위기를 읽은 듯) 중요한 얘기야?
그래도 따듯한 거라도 마시면서 하자, 너 손 너무 차다.

하며 민선의 손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기 시작하는 둘.

민선
유상아.

유상
듣고 있어,

민선
나한테, 이제 그만 잘해줘도 되.

유상
.... 그 말은 할 때 하더라도, ... 일단은 추우니까.

민선
그게 좋을 것 같아..

유상
왜그래..

민선
미안하다고 직접 말하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
그 동안 직접 말 할 자신이 없었어.
나... 좋은 사람 만나.

꿈속에서 본 민선의 모습 처럼, 민선의 뒤로 노을이 한 가득 들어온다. 여전히 눈부시다.
유상은 아무 대답없이 민선의 얼굴을 바라본다. 무슨 말을 해야하나. 무슨 말을 해야..
그녀를 위하는 것 일까.

유상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민선
아무말 안 해도 되.. 미안해.

유상과 민선의 그림자가 떨어진다. 이내 민선의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지고
유상의 그림자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다.

15. 학식당. 유상의 과거.

밥을 사서 앉을 곳을 찾다가, 현일과 앉아 있는 민선을 보는 유상.
유상은 초라하다. 그 뒤에는 종만이 있다.

종만

야... 그냥 편의점 다시 가자...

민선은 유상을 보고는, 얼음장처럼 굳어 있다. 이내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하고, 현일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러는 사이 유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유상이 일방적으로 현일에게 다가가 싸움은 시작된다.

16. 옥상 현재.

유상은 자연스럽게 담배를 하나 꺼내물고 불을 붙인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 하늘을 본다. 오랫동안 똑같은 하늘. 몇백일 동안 구름도 똑같은 하늘. 괜히 무서워 진다.

핸드폰 진동소리.

유상은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전화를 받는다.

유상 아빠.

바빠?

유상

아니, 태평해.

유상 아빠.

태평해? 아이고. 살맛났네. 엄마한테 소식 들었지?

유상 나레이션

아빠가 출장 간지는 일주일이지났고,

유상

들었지 뭐, 올 때 엄마 선물이나 사와.

유상 나레이션

내가 아빠를 못 만난지는 314일째.

유상

요즘 잔소리가 늘었어. 반찬도 맨날 똑같아.

유상 아빠

나는 그 반찬이라도 먹고 싶다 임마. 여긴 맨날 빵이랑 버터 밖에 안줘. 청국장 새로 왔다며. 그거 다 먹지 말고 꼭 남겨 놔라.

유상

그걸 어떡해 다 먹어...

유상 아빠

허허 그래. 내일 여기서 비행기 타니까. 모레쯤 이면 한국 들어 갈 것 같아.

유상

천천히 오시고, 올 때 엄마 앞치마나 하나 사 와.

유상 아빠

그래 알았다. 내일 먼저 들어 간다고 전화 넣었다. (사이) 아빠 이제 가봐야 하니까. 끊는다. 내일 보자.

하고 먼저 전화가 끊기면,

유상 나레이션

그리고 내일은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17. 유상의 집

유상 나레이션

나에게 다행은 단 두가지였다.

첫째, 나는 적응력이 빠른 청춘 이였고,

유상과 종만이 들어서 영화를 보고있다.

영화 속, 빗속에서 진한 키스를 나누는 커플, 로맨틱하다.

유상은 멍하니 보고 있다, 이내 정색.

유상

한국은 요새 비 안오냐.

종만

(침을 흘리며 영화에 집중하는) 뭐래, 해를 봐라. 중천이다.

유상

(은연중에) 비 맞고 싶다...

종만

나한테 맞을래? 스칼렛 누나 나온다. 집중 좀 하자 제발.

유상 나레이션

둘째. 내 옆에 종만이 놈이 있었다.

유상은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검색한다.

대구, 소나기.

18. 대구

유상과 종만은 오토바이를 타며 비를 맞는다.

유상 나레이션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갔다.

종만
미친놈아, 땡땡이 치고 영화관 가자며!!!

유상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누가 비 올 줄 알았냐!!!

종만
그냥 집에가서 영화나 보자니까!!

종만을 태운 유상의 오토바이는 멀리 질주하며 작게 사라진다.

19. 성인극장 앞

유상 나레이션
보고싶은 곳도, 어디든 갔다.

당당해 하는 유상과는 달리, 종만은 흠뻑..

종만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보자 니까.

유상
가끔은 퀄리티도 중요해. 여기 사운드가 죽여. 그리고 뭐 어때. 성인인데. 익숙해 져야지

종만
그래.. 뭐 우리가 성인이지 성인군자는 아니잖아.
유상이 먼저 여유롭게 들어가면, 종만도 주변을 살피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유상을 따라 들어간다.

20. 쇼핑거리.

길거리를 지나가는 유상. 그의 눈에, 샅에 디피 된 마음에 드는 옷이 눈에 띈다.

바로 들어가서 사 나온다.

유상 나레이션
도전하지 못 할 이유는 없었다.
실패 할 가치가 없는 것은 없었으니까.

21. 도서실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있는 유상.
그 옆에는 중국어와 책들이 이렇게 저렇게 쌓여있다.

22. 유상의 꿈 속 2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꿈 속은 민선과 함께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민선의 넘어로 가득한 햇살로 인해
민선의 얼굴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유상은 얼굴을 찡그리며 잘 보이지 않는 민선의 눈을 보려 한다.

집안에서 점심을 만들어 먹는 유상과 민선,
하지만 민선은 뒷 모습 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 행복한 유상과 민선의 정면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행복을 나누고 있다.

23. 아침, 육교 앞

버스에게 막 내린 유상과 종만.
유상은 전날의 꿈 때문에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하다.
유상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발걸음을 바꾸어 편의점으로 향한다.

유상
(종만에게) 야, 잠깐만 편의점. 담배.

종만
그래.

담배를 사온 유상과 종만은 담배를 하나 피우고 있다.

종만
야, 나도 담배하나만

유상
너 담배 안 피우잖아.

종만
원들 못해 영장이 나왔는데. 내 놔 새끼야.

하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쿵,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다.
유상과 종만은 의아한 얼굴로 담배를 피다 말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시선이 집중 된다.

육교 계단이다. 할머니가 떨어트려서 깨져버린 반찬 통에

땅에 떨어진 반찬을 급하게 담고 있다.
유상은 종만과 함께 지켜보다가, 이내 아침의 엄마 생각이 난다.
두부를 허겁지겁 줍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24. 다음 날, 같은 육교 앞.

육교 앞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
유상은 돈을 종만에게 쥐어 준 채, 빠르게 할머니에게 다가간다.

유상
할머니,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 드릴게요.

할머니
아이고, 젊은이! 고마워,

유상
(짐을 들며) 이리 주세요.

함께 육교 위를 걷는다.

유상
이거 다 파시는 거예요? 금방 부자 되시겠어요.

할머니
파는 건 아니고, 손자 줄거.

유상
이걸 다요?

할머니
혼자 사는데 든든하게 먹기라도 해야지.

유상
(할머니 손목에 파스를 본다.) 손목도 안 좋으신것 같은데.. 이게 다 뭐예요? 다 무겁네요.

할머니
장이랑.. 청국장. 새로 했거든. 반찬이랑... 김치도 있구 뭐, 노인네가 시골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유상
아... 네...

25. 다음날, 3월 15일 같은 육교 앞

육교 앞에서 할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유상.

할머니가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른다.

유상 나레이션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났다.
주변 사람들을 무사히 내일로 보내는 일.

26. 주방.

엄마가 두부를 썰고 있으면,
유상이 칼을 뺏어 든다.

27. 버스 정류장

종만에게 이천원을 건내고, 무심하게 버스를 탄다.

25. 편의점

유상
사은품은 괜찮습니다.

하고 음식을 사 나와서, 편의점에서 먹는 유상과 종만.

28.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따듯한 노을이 덮은 마을의 골목길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동네다.
그런 길은 유상은 터벅터벅 혼자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장군 분식 앞에서 멈춘다.

펫말 장군 분식 오늘 쉽니다.

유상 나레이션
점점, 나만의 회전목마에 익숙해 졌고,

이윽고 잠시 머물던 유상이 발걸음을 옮기자
펫말의 글자 `오` 는 새까맣게 칠해져 있다.
수정 된 펫말은

장군 분식 늘 쉽니다.

29. 학교 안

종만과 걷고 있는 유상
건너편 선배가 종만을 먼저 알아 보고는 다가온다.

종만

아 저 새끼, 눈 마주쳤어.. 야, 튀자.

선배

야, 유종만.

유상

선배 안녕하세요.

하고 유상이 예의있게 인사하자, 선배는 간단하게 인사를 받는다.

선배

내일 축구, 오지?

종만

(유상의 눈치를 보면) 아...

유상

그럼요. 저희 둘다 가죠. 몇시죠?

유상 나레이션

거짓말도 늘었으며,

하자 종만이 유상을 어마어마하게 째려 본다.

30. 유상의 방

침대 위 11시 59분. 나머지 일분을 기다리는 유상.

침대에 누워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라본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시계는 1분이 지난 12시. 여전히 3월 15일 이다.

유상 나레이션

밤엔 울었다.

눈 위로 팔을 올리고 한 숨을 내 쉬다가.

이내 울기 시작한다. 서럽게...

31. 아침, 정류장 앞

버스가 도착한다.

유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차에 오른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찾는 유상. 지갑을 찾아 보지만... 없다.

종만

왜? 지갑 놓고 왔냐? 그렇게 자식아 정신 좀 차리고 다녀 임마.

유상은 뒤를 돌아 종만을 쳐다본다.
이내 버스는 들을 놓고 문이 닫히채 출발한다.

사이

텅 빈 정류장. 둘만 남은 종만과 유상.

종만
어떡해 둘 다 지갑이 없을 수가 있지.

유상
(왠지 모를 미안함에) 미안...

종만
니가? 니가 왜 미안해. 야, 됐어. 그냥 집에가서 지갑이나 가져오자.
형 오늘 영장도 받고, 덕분에 용돈도 받았어.

유상
야, 그냥 땡땡이 치자. 어차피 늦었는데.

종만
지갑없이 땡땡이 쳐서 뭐하게. 들어서 씨씨씨 하게?

유상
아... 맞다.

종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집가서 지갑 들고 올 테니까.

유상
빨리 와.

종만이 사라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유상.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낯선 할머니가 오자, 자리를 양보한다.

유상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자, 순간적으로 생각난 할머니.
아차, 한다.

32. 육교 앞

종만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허겁지겁 할머니를 찾으러 뛰어가는 유상.

종만
야, 어디가!

역시 너무 늦었나... 하며 주위를 살피다가
육교 반대편에서 할머니를 발견,
서둘러 육교로 향하는 유상.
계단을 타고 반대 쪽에 도착하면,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는 헤인 발견,
첫 눈에 사로 잡힌다.

헤인
할머니, 이렇게 무거운 거를 혼자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할머니
계단이 조금 힘들지, 나머지는 괜찮혀.

헤인
근데 이건 다 뭐예요? 음식이에요?

할머니
이건 청국장이고.. 저건 반찬이고..

헤인
다 직접 하신거예요? 이거 다 파시면 금방 부자 되시겠어요.

할머니
팔기는... 다 손주 놈 꺼지

헤인
아... 손주 놈이 계시구나. 그럼 그 놈한테 좀 마중 나오라고 하지!

할머니
한 두번도 아니고 가는 길도 다 아는데, 뭐. 이 육교만 넘으면 코 앞이여.

헤인
그래도 이 집을 어떻게 할머니 혼자 드세요. 이것 봐. 이것 만 해도 대충 3키로는..

집을 들어 보이다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는 헤인.
뒤에서 유상이 잡아낸다.

유상
괜찮아요?

놀란 헤인과, 더 놀란 유상. 둘은 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사이의 정적, 왠지모를 기류가 흐르면

헤인
네? 네... 괜찮아요.

유상
주세요, 이거는.

유상은 헤인에게 짐을 잡아 들고는 계단을 내려간다.

33. 육교 반대편.

헤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
네.. 아니요. 별거 아닌데요, 뭐.

헤인
괜히 제가 도와 드린 건데, 사고 칠 뻔 했어요.

유상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헤인
덕분이에요.

둘다 할말이 거의 떨어지자 어색한 기류가 맴돈다.

헤인
학교, 가시 나 봐요.

유상
네... 뭐,

헤인
저 때문에 지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습니다.

헤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유상도 헤인의 인사에 대답을 하듯 고개를 숙이고는
돌아서 가는 헤인의 뒷 모습을 뵈히 보고만 있다.

34. 유상의 방

11시 59분 핸드폰 배경 화면을 본다.
그리고 1분이 지나가 12시가 된다.
3월 15일. 유상은 날짜를 확인하고는 잠에 빠진다.

35. 육교 앞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온 유상.
멀리서 할머니를 지켜본다.
헤인이 등장하자 바싹 긴장한다.

헤인
(통화중) 응 엄마. 영양제도 다 먹었고, 배 즈도 다 마셨어. 지긋 지긋하게 건강해. 그러니까 걱정 하지 마.

헤인의 눈에 반찬을 떨어트리는 할머니가 들어 오면,

헤인
미안, 내가 다시 전화 할게,

할머니에게 다가가 짐을 들어주는 헤인이다.

헤인
할머니,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찰나, 난대없이 유상이 나타나며,

유상
저도, 도와드릴게요.

하며 헤인과 눈을 맞추는 유상.

36. 반대편 육교 아래.

헤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
별거 아닌데요, 뭐.

헤인
제가 괜히 도와드린 건데... 사고 칠 뻔 했어요.

유상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헤인

덕분이예요.

유상
등교, 하시는 중 이신가요.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며 유상이 간단하게 인사를 건넨다.
헤인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유상의 뒷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는 헤인.

37. 놀이공원

바이킹 앞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헤인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 건축물의 특징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중이다.
사진의 구조를 잡기 위해 카메라 앵글을 잡으러 뒷 걸음질 지치다가
문득 화면 안에 잡힌 유상이 보인다.

헤인 자연스럽게 카메라 속에 유상을 바라본다.
화면 속 유상은 사진을 찍으려 이리저리 각도를 찾고 있다.
헤인은, 카메라 속 유상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화면 넘어로 계속, 바라 보고 있다.
유상도 곧, 자신의 화면 넘어로 헤인을 발견한다.

서로의 카메라 렌즈 넘어로, 헤인과 유상은 서로 마주본다.
놀란 헤인과 여유 있는 유상.
카메라를 내려 놓고는, 서로 웃는다.

38. 놀이 동산 안

헤인
무슨 공부 하세요.

유상
교육이요. 그 쪽은요?

헤인
건축이요. 과제중이예요. 다음주 까지 라서 꺾어버리면 안되거든요.

유상
과제를 놀이동산에서 해요?

헤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축물이 여기에 있거든요

유상이 궁금하다는 얼굴로 헤인을 바라보면,
헤인은 장난기있는 얼굴로 앞장선다.

39. 롤러코스터 타기 전

긴장한 얼굴로 롤러코스터를 탈 준비를 하는 유상.
무섭다. 당장 내리고 싶다.

헤인

사실 제가 오늘 친구한테 바람 맞아서, 이거 혼자 타야되나 무지 고민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타기는 그렇고, 혼자 타자니 쪽팔리고. 정말 다행이에요.

유상

잘 생각한거 맞아요? 이게 확실해요?

헤인

이거 맞아요. 완전 무서운 롤러코스터.

안전 요원이 다가와 안전 검사를 한다.

유상

(공포) 너무 틀에 안박힌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맞아요?

헤인

사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못내려요.

직원이 출발 사인을 보내고, 유상은 눈을 꼭 감는다.

40. 롤러코스터를 탄 후

유상의 옷이 바뀌어져 있다.
어지러운지 허리를 숙이며 잠깐 숨을 고른다.
그의 등을 두르려 주며 난감해 하는 헤인.

헤인

무서운 거... 잘 못타요?

유상

고소 공포증 있어요.

헤인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죠...

유상

아.. 제가 온 몸을 이용해서.. 심지어 내 무의식까지 동원해서 표현을 했는데.. 모르셨구나..

헤인

저는 과제를 위해서... 그래도 타기 전에 어떡해 포기를 해요. 꽤 오래 기다렸잖아요.

유상

아무리 생각해도 기다린 시간보다 탄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웃고 있을 때, 스크린에 롤러코스터 사진이 뜬다.

헤인이 스크린 사진을 보더니 창피한 듯

헤인

아!... 어쩔 저렇게까지 못생길 수 있지?

유상

(사이) 가만있어봐. 그럼 나도 저거 좀 찍어 도 되죠? 취미를 위해서...

헤인

핑계같은데...

유상

핑계가 아니라 이유죠.

헤인

초상권 침해.

유상

아닌데요, 개인 소장.

헤인

(좌절..) 그래도 이건... (사이) 그럼 이쁘게 나오게 한번 더 탈까요 우리?

유상

(사랑스럽다는 듯 웃으며) 아니요

유상 나레이션

그녀가 어떡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41. 놀이동산 밖

웃이 바뀐 유상.

헤인

(스피드 사진을 보며) 진짜 너무해. 어떡해 얼굴을 딱 가릴 수가 있지?

그 자리에 카메라가 딱! 있는지 알고 있던 사람처럼.

유상

딱 가린게 아니라 꾸준히 가리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유상 나레이션
적어도 그녀를 만날 때 만큼은
시간이 흐른다는 착각이 들었다.

놀이동산 배경이 보이는 호수 공원을 돌이 걷는다.
조용하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
혜인은 얼어있는 자신의 손을 호호 분다.
그러자 가방에서 장갑을 꺼내 혜인에게 건넨다.

혜인
뭐예요?

유상
손 시럽 다면서요.

혜인
(웃으며) 독심술 배웠어요?

유상
그런건 원래 타고 나는거 아니예요?

혜인
(웃으며) 고마워요.
(사이) 날씨가 아직 얼어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조금만 따듯하면 여기 벚꽃 정말 이쁘데.

유상
왜 요, 저는 지금도 좋은 것 같은데.

혜인
(놀라며) 혹시 벚꽃 싫어해요?

유상
(웃으며) 아니요.

혜인
(놀라며) 그럼 꽃가루 알레르기는요?

유상
(웃으며 고개를 절레 절레 젓는다.) 없어요.

혜인
(놀라며) 그럼, 4월에 여기 다시 올래요?

예상치 못한 데이트 신청에, 유상은 당황한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헤인
이거, 내가 데이트 신청하는 건데.

유상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저기...

헤인
(부끄러움과 어색함) 이런건 원래 남자가 먼저 하는거 아닌가..

유상 나레이션
거짓말에 익숙해 진 줄 알았는데...

유상
(결국은 말했다) 같이와요.

헤인
저 그렇게 데이트 신청 먼저하는 여자 아니에요.

유상
저도 아무하고 데이트 하는 남자는 아니죠.

헤인
솔직히 말해 봐요. 오늘 아침에 저 일부러 도와주신거죠?

유상
(웃으며) 그런 짐 들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셔서...

헤인
(피식 웃으며) 되게 솔직해서 좋아요.

유상
그 할머니가요.

헤인
(정색) 그러니까요. 정말 연약해 보이 셧죠. 그 할머니가.

먼저 빠르게 걷는 헤인
유상은 웃으며 뒤 따라 간다.

유상
빠졌어요?

42 . 편의점 앞

편의점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유상과 종만
뜬금없이 미소짓는 유상을, 종만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종만
여자냐?

유상
(정색) 아니야.

종만
그럼, 남자?

유상
좃만아. 유좃만.

종만
아 뭔데! 너 정민선이랑 일주일 전에 헤어졌다고 그래놓고 이 눈빛 어쩔거야.
설마 너 나한테도 숨기냐? (사이) 이쁘냐?

유상
(짜증내며) 아 진짜!!!!!!
(샤르르 녹아내리며) 어...

종만
진도는?

유상
아... 그만 해라 진짜.

종만
사진 딱 줘. 견적 뽑아 줄게.

유상
없어. 그런거... 그냥... 그냥 이빠.

종만
근데 너 진짜 이별 한 애 맞냐? 네 그 눈빛만 보면 정민선이라는 존재는 아예 없다니까?

민선의 이야기를 듣자 곧 시들어진다.

유상
개 얘기는 꺼내서 뭐해...

종만

니가 아무렇지 않아서, 나는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너무 멀쩡한거 보니까 괜히 니가 나쁜 새끼 같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유상

옛날 일인데 뭐... 이제 개 생각도 안나.

하자, 유상의 얼굴은 잠시 골돌히,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유상

야, 일어나.

종만

왜? 아직 라면 3분 안됐는데.

유상

밥먹으러 가자.

종만

어딜?

43. 학식당

유상은 밥을 먹고 있는 민선과 현일의 건너편에 앉는다.

종만

야, 미친새끼야, 나 존나 불편해. 그냥 다시 편의점 가서 먹자.

유상

뭐가 불편해. 그냥 편하게 먹어.

유상은 민선 쪽을 한번 힐끔 바라보다가, 이내 신경도 쓰지않고 밥을 먹는다.

민선은 불편한지, 유상을 신경쓴다.

유상은 묵묵하게 밥을 먹는다. 민선은 그런 유상의 모습이 불편하다는 듯,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린다.

종만

야, 너 이래도 되? 김현일도 같이 있잖아.

나가버린 민선의 뒷모습을 보는 유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마음 한 구석이 썩... 하다.

애써 편하고 쿨한 척, 종만 앞에서 더 씩씩하게 밥을 먹는 유상.

유상

괜찮아. 신경쓰지마. 밥이나 먹어.
학식 오랜만이다.

44. 도서관

강의를 땡땡이 치고 온 도서관. 책을 얼굴 위에 올려 놓은채 낮잠을 자고 있는 듯한 유상. 그러나 이내 눈을 뜬다.

유상 나레이션

속이 시원할 줄 알았다. 아니, 적어도, 내가 이별로 부터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나를 버린 여자에게 끔찍한 복수를 수도 없이 상상했다. 하지만... 부끄러웠다. 왠지모르게 내 자신이 한심했다.

문자 메시지,
정민선

문자를 받고 고민하는 유상. 그리고는 걱정 했다는 듯한 얼굴.

45. 카페

민선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유상

생각보다 지낼 만 해.

민선

아까는, 내가 불편해서 먼저 나갔어.

이런말 너무 얽치 없는거 아는데... 우리 당분간 서로, 최소한의 예의는..

유상

아까는, 내가 미안했다.

예상하지 못한 유상의 반응에 당황하며

민선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미안하지...

유상

아까는, 내가 좀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최소한의 예의로서 가 아니라, 그냥 남자로서. 이 말은 꼭 해야 겠어서 나왔어. 딱 오늘만 할 게.

민선은 묵묵하게 유상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유상

줄곧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하나 고민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괜찮다고 너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아까 너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 너랑 나랑 진짜 헤어졌더라.
너를 미워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민선

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다.

유상

네가 아무렇지도 않아야지 정상 아니야? 너야 말로 남자친구가 뭐라고 안해?

민선

너는 아직도 내 걱정만 하네.

유상

너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았던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가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민선의 눈가가 축축해 진다.

유상

내가 너를 생각하는 건 딱 걱정 까지야. 울지마, 나는 못달래줘.

민선

우리 진짜 헤어졌나봐...

유상

울면, 아직 헤어지는 종인거지. 나도 여전히 생각은 나, 가끔.
근데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야. 그 안엔 너만큼 사랑스러웠던 나도, 포함이고.

민선

미안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네.

유상

이제 나는 그냥... 니가 너무 오래 미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지내.

유상 나레이션

길고 긴 시간을 통해 나는 드디어, 이별을 했다.
그 후로, 그녀가 내 꿈에 찾아 오는 일은 없었다.
꿈 속에서 나는 혼자, 과거 속에서 행복해 했다.

#46. 놀이동산

롤러코스터 스피드 사진이 나오면
재밌다는 듯 웃는 두사람.

유상 나레이션
그리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녀가
상관 없을 만큼.
나는 내 하루를 다해 그녀를 사랑하는 기적을 경험했다.

47. 헤인의 집으로 가는 길.

어둑어둑해진 길 위로 헤인과 유상이 걷는다.

헤인
안 데려다 주셔도 되는데.

유상
나도 이 근처 살아요. 이 동네 저녁에 좀 위험 하잖아요.

헤인
나는 누가 잘 도와줘서 괜찮아요.

유상은 헤인이 또 귀엽다는 듯이 웃으면

유상
떡볶이 좋아해요?

헤인
음... 몇군데?

유상
그럼 다음에 거기 같이 갈래요?

헤인
네?

유상
제가 자주 가는 곳은 늘 안열어서...

헤인
아... ,

유상
저 지금 데이트 신청 하는 건데...

헤인도 유상의 장난에 웃는다.

유상
이런거는 원래 여자가 먼저 하는거 아닌가..

혜인
네, 같이 가요. 같이 갑시다. 제가, 호수 공원 근처에 잘하는 떡볶이집 알아요. 꼭 같이 가요.

유상
진짜죠. 약속 했어요.

혜인
네, (사이) 다왔어요. 여기에요.

유상
고마웠어요, 오늘. 낫선 사람이랑 놀아줘서.

혜인
또 봐요, 그 땐 안 낫설게.

유상
들어가요

혜인
즐거웠어요.

유상
저두요.

혜인
잘 가요.

유상
잘 가요.

혜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유상은 문이 닫힐 때 까지 서 있다.
닫힌 문을 계속 바라보던 유상은, 이내 방에 불이 켜진 것을 확인 하고는 그제서야 몸을 돌린다.
돌아가는 길의 유상의 표정은... 아쉬움과 설렘.

48. 혜인의 집

룸메이트 지현과 티비를 보고 있는 혜인.
별거 아닌 코미디 프로그램.
혜인 혼자 배꼽을 잡으며 웃는다.

헤인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눈물 날 것 같아. 나 저기 휴지 줌.

지현은 수상한 듯 헤인을 보더니, 이내 휴지를 잡아서 건내 준다.

지현

기분 좋아 보인다.

헤인

(티비에 집중하며) 글썸... 그런가..

지현

아니 무슨 경사가 났나 싶어서.

헤인

경사는 무슨... 그냥 재밌잖아. 안 웃겨?

지현

니가 더 웃겨. 너 지금 완전 이상하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알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먼저 물어 봐 주길 바라는 거야?

헤인은 지현을 무시한체 다시 티비를 보며 깔깔 거린다.

지현

어디 옆 동산에서 잔치라도 냈데? ... 냈네. 옆 동산, 놀이 동산. 오늘 너 놀이동산 혼자 간거 아니지?

헤인

(뜨끔) 혼자 갔어,... 혼자.

지현

근데?

헤인

근데.. 근데 뭐,...

지현

잘 생겼어?

헤인

(에라 모르겠다) 아니.. 뭐 그냥 그럭 저럭 생겼어.

지현

어머 왜일이니. 어떤 사람인데?

헤인

그냥 몰라... .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몇번 만난 사람처럼 이상하게 친근하고,... 뭐랄까. 나랑 잘 맞는다고 해야하나.

지현

지지배. 그러면서 내승은. 완전 마음에 들었구만. 야, 조심해. 너무 좋아하는거 티내면 안된다.

헤인

(혁) 응? 왜?

지현

그럼 그쪽에서 안심할 거 아니야! 어느정도 튕겨.

헤인

야,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했어!

지현

야, 시작이 반이라는 말 몰라? 시작 했으면 이미 받은 한 거야! 절때 먼저 문자 보내지 말고, 연락 오기 전까지 기다려.

헤인

혹시... 여자가 먼저 에프터 신청은

지현

너 정말 남자친구 사귀기 싫으니?

49. 헤인의 방

리포트를 정리하는 헤인

책상 위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다.

인터넷에 참고 사진을 위해 회전목마 검색.

인터넷 화면에 나오는 사진들 중 오늘 본 회전목마가 있다.

헤인은 사진을 멍하니 보다가, 이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들고 유상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다.

그리고 유상 생각.

지현

좋아 죽네 아주, 좋아 죽어.

헤인

야, 왜 노크도 없이 들어 와.

지현

야! 나 네 룸메이트거든! 그거 내 노트북이잖아.

헤인
아.. 맞다.

지현
근데 너 진짜 에프터 신청 니가 한 거야? 세상세...

헤인
그게 뭐 중요한가...

지현
주님...

지현이 침대에 털썩 눕고, 헤인은 다시 리포트에 집중하려 애쓴다.
하지만 쉽게 집중이 되지 않는다.

헤인
(뒤를 돌아 지현에게) 여자가 먼저 문자 보내면...

지현
응, 보내. 그리고 그 남자도 같이 보내. 저 멀리 요단강 넘어로.

50. 유상의 방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는 유상
헤인의 웃음이 가득 담긴 사진들 투성이다.

유상 나레이션
내일 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라.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대.

인쇄한 사진을 들고, 침대에 눕는다.

유상 나레이션
오랜만이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 내일을 기다리는 일.
단 하루만에 누군가가 좋아지는 일도.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너무나 빠르게 과거가 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모든 것들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란 걸 잘 알지만,
다행히도 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나를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고 이불을 덮는다.

51. 떡볶이 집

헤인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집이에요.

유상

오늘 떡볶이 정말 먹고 싶었는데. 제가 하는 곳은 오늘 쉬는 날이라.

헤인

덕분에 저도 떡볶이 오랜만에 먹어요.

유상

저두요.

헤인

(유상에게 물을 따르며) 근데 그쪽 되게 친근하다. 우리 오늘 처음만난 사이맞나?

유상

왜요? 아닌 것 같아요?

헤인

그냥, 왠지 아닌 것 같아서요. 얼굴은 분명 모르는 사람인데. 신기하죠.
예전에 우연히 만난적이 있나.... 전생에 만났을 수도 있고.

유상

그런거 믿어요? 마법이나 기적같은거.

헤인

그런건 오바구요..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설마 그런거 믿어요?

유상

믿는 편이죠.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보다, 그런게 있다고 믿으면 편하니까.

헤인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마법같은 일은 한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서.

유상

단 한번도요?

헤인

네. 제대로 사느라 바빴죠. 작년에는 예상치도 못한 교통사고 때문에 휴학해서,
덕분에 지금은 배로 바쁘구요. 참고로 저는, 경험론자에 현실주의자라.
근데 한번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유상

일어났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구요?
아님 혹시 또 모르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하며 눈을 맞추는.

헤인

선수야... 그런 시기상 적절한 멘트는 어디서 배웠어요?

유상

이런 것 또한 타고 나는 거죠.

유상이 재밌다는 듯 헤인과 함께 눈을 맞추며 웃는다.

52. 공원

식사를 마친 후, 다정한 분위기 속에 밤 거리를 걷고 있는 헤인과 유상

헤인

나, 그 얘기 하나면 해주면 안돼요?

유상이 무슨? 하는 얼굴로 헤인을 보면.

헤인

믿기 힘들어요. 아까. 하나만 해줘 봐요.

유상은 아무말 없이 고민한다.

헤인은 그런 유상을 뒤로 한 채 조금 빠르게 걷는다.

유상이 조금씩 느리게 걷는 건가.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조금씩 멀어진다.

헤인이 뒤를 돌아 유상을 보면

유상

넘어져요. 위험해.

헤인

그래도 궁금한데.

궁금해 하는 헤인의 얼굴을 보며, 유상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연다.

유상

제가 만약에, 그쪽을 단 하루밖에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헤인

네? 그게 무슨 소리에요.

유상

그냥, 믿기 힘든 일 말 해 달려면서요. 하는 중인데.

혜인
혹시 군인이세요? 휴가 나온 건가?

유상
(웃는다.)

혜인
그럼 혹시 바다에서 일해요?

유상
(고개를 절래 절래)

혜인
그럼... 혹시 내가 별로 예요? 벌써 질렸어요?

유상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걸음을 멈춘다.

유상
아니요.

혜인
그럼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있어요?

유상이 아무 대답도 못한다.

혜인
어! 속이는거 있나 봐! 뭔데요? 꼭 필요한 거짓말이면, 용서해 줄게요.

유상
그쵸... 꼭 필요한 거짓말이면... 매일 속이는 건, 쓸쓸하죠...

혜인
매일 속이는 쪽도, 쓸쓸하지 않을까요.

유상 나레이션
갑자기 겁이 났다.

혜인
뭐예요. 믿기 힘든 꼭 필요한 거짓말. 말 안할거예요?

유상
나중예요. 조금 이따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 때 할게요.

유상 나레이션

그녀는 내일로 갈 텐데...

헤인

아 뭐야. 김 다냈네... 그래요 그럼.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죠? 그럼 빨리 가요.

하며 헤인이 빠른 걸음으로 먼저 간다.

헤인

(뒤를 돌아보며) 안 가요?

유상 나레이션

안 가는게 아니라.

유상

못 가는 건데..

헤인

뭐라구요?

유상

이쪽으로 잠깐 오면 안돼요?

헤인

이쪽 방향인데.

유상

잠깐 뭐가 생각 나서 그래요.

헤인

뭔데요?

하면서 헤인이 유상에게 다가온다.

유상 나레이션

딱 하루만...

유상

조금 더요.

헤인이 유상의 발 바로 앞에 서서 유상을 바라보면

유상

하고 싶은게 있어요. 잠깐만 그대로 있어요.

유상은 천천히 헤인에게 다가간다.

헤인은 분위기를 알겠다는 듯, 긴장한 듯 서 있다.
살짝 움찔, 하자

유상
움직이지 말아요.

그리고 유상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숙여 헤인에게 입맞춤...
헤인은 눈을 감고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은채 가만히 유상의 입맞춤을 받아드린다.

53. 길거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상 혼자 변화가를 걷고 있다.

유상 나레이션
역시... 괜한 약속을 해 버린게 아닌가,
나는 매일 그녀를 , 미래에 혼자 보내는 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 속에 섞여 힘 없이 걸어간다.
길거리의 수많은 커플들.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들.
그저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상.

유상 나레이션
같은 여자와 매일 같이 사랑에 빠지는 건 참으로 기적같은 일이지만,

54. 헤인과 처음 만나는 장면의 육교

헤인이 할머니 집을 도와 드리다가 미끄러지려고 하면
옆에 도와주는 유상.

유상
조심하세요.

헤인
아, 네.... . 감사합니다.

유상은 급히 사라진다.
헤인은 유상의 뒷 모습을 은연중에 바라본다.

유상 나레이션
어쩌면 나같은 기적따윈, 그녀에게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55. 놀이동산 회전 목마 앞.

헤인

이게 유상씨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예요?

유상
네

헤인
롤러코스터는 아니 시더니, 이런 타입 이셨구나....

유상
타는거 말구요. 보는거요.

헤인
(회전목마 앞으로 걸어가며) 그러네요. 괜히 기분 신나진다. 사람들도 다 좋아보이고.

유상
원래 회전목마가,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연습용 목마 였데요.
원래는 롤러코스터보다 더 무서운 기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쁘죠. 슬프고.

유상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헤인은 회전목마로 뛰어간다.

헤인
한번 타고 올게요!

헤인은 회전목마에 오른다.
유상은 그런 헤인을 카메라에 담는다.
유상은 계속해서 회전 하는 헤인을 바라본다.
축은해 지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다.

유상 나레이션
그녀는 내일로 갈텐데.

유상은 잠시 딴 생각에 빠져있다가 이내 사라진 헤인을 찾는다.
톡톡, 뒤에서 누군가 유상의 어깨를 두들긴다. 헤인이다.

유상
재밌었어요?

헤인
재밌긴 했는데, 말들이 좀 불쌍했어요. 제가 무거운가봐요.

유상이 아무말도 못하고 서 있다.

헤인
괜찮아요?

유상
네...

55. 유상의 방

핸드폰을 바라보면 시계는 9시 30분.

유상은 핸드폰을 끄고 침대 위에 눕는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
잠시 고민하다가, 침대에서 일어난다.

56. 헤인의 방

리포트를 하고 있던 헤인,
잠시 유상의 생각에 집중을 잃는다.

혼자 헛웃음을 날려버리며 다시 집중을 하려던 찰나.
유상에게서 메시지를 받는다.

유상, 메시지
자요?

답장, 메시지
아니요, 아직이요.

보내자마자 금방 답장 메시지가 온다.

유상, 메시지
알아요.

메시지를 읽은 헤인은 뭐지? 하는 얼굴.

56. 헤인의 집 앞.

헤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

헤인
집에 안갔어요? 여기서 뭐해요?

유상
갔다가, 주고 싶은게 있어서 다시 왔어요.

헤인
이 시간예요?

유상

오늘이 아니면, 안될 것 같아서.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유상은 손에 들린 꽃을 헤인에게 건넨다. 커다란 안개 꽃이다.
헤인은 놀라서 그저 가만히 있다가, 이내 꽃을 건네어 받는다.

헤인

이거 주려고 다시 온거예요?

유상

미안해요...

헤인

뭐가요.

유상

그냥.. 벚꽃이 아니라서요.

헤인은 꽃 냄새를 맡으며,

헤인

이것도 이쁜대요, 저 안개 꽃 되게 좋아해요.

유상

정말요?

헤인

진짜데. 그리고 우리 벚꽃은, 같이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잊은거 아니죠.

유상은 조심히 고개를 끄덕인다.

헤인

(꽃 속에 들어있는 사진을 발견하고는) 이건 언제 찍은거예요?

유상

놀이동산에서 오늘 처음 만났을 때랑, 회전목마에서요.

헤인

고마워요. 액자에 넣어 둘게요.

유상

추워요. 얼른 들어가요.

헤인

고마워요. 유상씨도 조심히 가요.

유상
잘 가요.

혜인
제가 가는게 아니라, 유상씨가 가는거죠. 저는 여기 있고,

유상이 따듯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면,
혜인도 손을 흔들어 보인다.
혜인이 집으로 들어가고, 혼자 남은 유상의 표정은 정말 차갑게, 식는다.
그리고는 한 참을 서 있다가, 조금씩 몸을 돌려 사라진다.

57. 혜인의 방

꽃을 들고 좋아하는 혜인
그런 혜인을 달갑지 않게 보는 지현

지현
꽃도 받았어? 오늘 처음 만난 사람 맞아?

혜인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사람 같아.

지현
실력도 좋아, 기집애.

혜인
집에 꽃병 있나? 안 시들라면 물 바로 줘야겠지?

지현
꽃은 어디다 둘건데?

혜인
거실! 너 보고 배 아프라고!

혜인은 신나하며 방 안으로 들어간다.

지현
저 기집애가 진짜!

58. 유상의 방

유상 나레이션
이제 그녀를 다신 만나선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이미 나를 알아버린 네가, 너무 오랫동안 아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헤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본다.
핸드폰 시간은 11시 59분.
12시로 바뀌자마자, 사진은 마법같이 사라진다.

그리고는 쓸쓸한 빈 손만 남아있다.

59. 헤인의 방

시계 알람소리. 탁자 위의 시계는 3월 16일 8시다.
헤인, 손을 뻗어 시계 종을 꺼 보려 하지만 달지 않는다.
60. 주방

목이 마른지, 감은 눈으로 물을 마시는 헤인.
물 한컵을 전부 마시고 기분 좋게 기지개를 피며 돌아선다.
뭔가 허전한 책상 위. 꽃이 없다.

지현이 기지개를 피고 나온다.

지현
일찍 일어났네.

헤인
지현아, 여기 꽃 어디다 치웠어?

지현
꽃? 무슨 꽃?

헤인
내가 어제 유상씨한테 선물 받은 꽃. 여기다가 뒀잖아.

지현
무슨 소리야? 너 남자 생겼어?

헤인
야... 그 꽃 어디있어. 어제 물 주는 것도 깜빡 했는데.

지현
괜찮아 너? 왜그래?

헤인
너야말로 왜그래...

썩한 기분이 드는 헤인, 서둘러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에 있는 유상의 사진을 찾으면,

없다. 당황하는 헤인.

헤인

지현아, 오늘 며칠이지?

지현

오늘? 어... 오늘 16일인가? 야, 너 얼굴이 왜이렇게 창백해.

61. 헤인의 집 앞

집 앞의 쓰레기 통을 정신없이 뒤지고 있는 헤인.

지현이 허겁지겁 뛰어나와 말리면,

지현

헤인아! 왜그래, 뭐 중요한거 잃어 버렸어?

헤인

(묵묵히 쓰레기 통을 뒤지며) 어,

지현

원데, 무슨 말이라도 해 줘야 같이 찾지.

헤인

꽃이랑... 사진이랑...

지현

너 진짜 꿈 꾸거 아니야? 너 어제 평소랑 똑 같았다니까?

헤인

아니야.. 분명 여기 어디 있겠지. 어디 갔겠어 그게?

지현

야, 진짜 중요한 거면 너나 내가 쓰레기통에 버렸겠냐?!

지현의 한마디에 헤인은 어느정도 현실을 직시한 듯

헤인

... (머리를 뒤로 넘기며 놀란 마음을 진정 시켜려는 듯 애 쓴다.) 지현아...

헤인 나레이션

어디서 부터 잘못 된 걸까.

62. 헤인의 방

우울한 듯, 침대에서 멍하니 누워있는 헤인.

우울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티비를 보고, 결국은 컴퓨터에서 회전목마를 검색해 멍하니 보고 있다.

헤인 나레이션
그래 맞아. 너를 쓰레기 통에서 찾을 수 있을 리가 없는데.

63. 헤인 회상

헤인
이상하게 친근하고... 진짜 꼭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64. 회전 목마 앞

회전 목마 앞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헤인

헤인 나레이션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전부 다 가봤다.
그쪽을 빼면 존재 할 수 없는 곳들.
그런 곳에, 내가 있었다.

홀로 남은 회전 목마 앞, 헤인은 텅 빈 눈으로 유상을 찾는다.
그리고 이내 부질없는 일임을 알고, 실망한다.

64. 시간이 흐른 후. 강의실

학생들이 강의실을 빠져나간다. 그 속에 헤인은 멍하니 앉아 있다.

지현
헤인아, 밥 먹으러 가자.

헤인
어? (정신을 차리며)

지현
괜찮아?

헤인
어... 괜찮아. (애써 웃으며) 가자.

헤인 나레이션
내 인생에서 하루가 사라지고 나서도, 시간은 잘만 흘러갔다.

65. 시간과 장소의 변화

도서관/ 강의실/ 카페/ 아르바이트 등

헤인 나레이션

나는 그 속에서 익숙해 졌고,
포기하는 법을 깨달았으며,
잊는 법을 받아 드렸다.

66.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씩 웃기 시작하는 헤인.
가끔 웃음 사이로 유상을 끼어들지만, 나름대로 잘 이겨내고 있다는 듯
금새 밝아진다.

열달 후

67. 강의실

지루한 강의시간
창밖으로 먼 곳을 바라보던 헤인의 귀에,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조교수
너희들 강교수님 과로로 입원하신거 알고있지?
병문안 꼭 가봐. 반은 니들 탓인데.
못 가는 놈들은 꼭 연락 드리고!
너희들이 교수님한테 잘해야, 내 얼굴 더 안본다.
이상.

지현
(헤인에게) 야, 강의 하기 싫은 티 너무 내는거 아니야?
아주 강의를 사발로 말아 드시더니.

헤인
(웃으며) 애들이랑 시간 맞춰서, 같이 가자.

지현
야, 시간 맞출 필요가 어디있어. 지금 가자.

헤인
미쳤어? 우리 바로 다음 강의있어.

지현
어떡하긴 뭐 어떡해. 그냥 짜는거지. 지가 가라고 했잖아.
가자! 가자가자,

하며 지현의 손에 잡혀 강의실을 나온다.

68. 병실

음료수를 들고 병문안을 온 지현과 혜인,

지현
교수님! 저희 왔어요.

혜인
잘 지내셨어요.

교수
아이고, 무슨 이런 곳까지 오고 그래. 그것도 이 시간에. 강의 있는 시간 아니야?

지현
조교수님이 교수님 병문안을 꼭 가보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학생 대표로 이렇게 조금 일찍 왔어요! 교수님 없으니까 학교가 텅 빈 것 같아요!

혜인
(음료수를 내려놓으며) 이걸 뇌물이에요. 빨리 나오시라는.

교수
유기농이냐.

혜인
(속닥) 백프로예요.

하면, 재밌다는 듯 웃는 교수. 분위기가 좋다.

교수
솔직히 말해, 너희들 조교수 강의 재미없어서 왔지?

지현
아이고... 들켰어요? 죄송해요..

교수
대출은 누가 해줘?

지현
잘 부탁하고 왔어요. 아직 저희 얼굴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교수
잘하는 짓이다 이놈들아.

혜인
교수님 이시면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빨리 쾌유 하셔서 오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교수

뭐 살짝 빠르긴 한데, 이삼일 뒤면 퇴원 가능 하데.

지현

그래도 우리가 제일 일찍 왔죠?

교수

강의 짜고 온 놈들한테 칭찬을 할 수도 없고...

헤인의 핸드폰이 울리면,

헤인

애들 왔나보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69. 병원 복도

헤인

(전화) 우리 먼저 올라와 있어. 맞아, 7층. 몇명이나 왔어?
아... 내가 음료수는 사왔으니까. 간식이나 좀 사와. 몸에 좋은 걸로.

간호사

환유상 환자 보호자 되시죠?

전화를 하고 있는 헤인의 귀에 유상의 이름이 들리면,
옆 병실에서 유상의 엄마가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상의 이름이 적힌 병실을 무심코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간다.

헤인 나레이션

진짜까봐,

겁이났다.

그 사람이 병원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 할 까봐.

종만

누구...

헤인이 놀라서 뒤를 돌아 본다.

어떡해 대답해야 하나 당황...

70. 유상의 병실 안.

종만 나레이션

교통 사고가 있었어요.
그 때부터 이렇게 일년 넘게 잠만자요.
의사 선생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무슨 좋은 꿈을 오래 꾸는지..

침대에 누워있는 유상
헤인은 천천히 다가간다.

종만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신지...
어떡해 이제 왔어요?

헤인
그게... 우연히.. 밖에 걸린 이름을 보고... 병원에 계실 줄은 몰랐어요.
유상씨가 저를 기억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이) 저는 알거든요. 유상씨.

종만
그럼요. 이 자식도 좋아 할 거예요.

헤인은 유상의 곁에 가까이 다가간다.

종만
저기, 혹시 이 자식이 그 쪽 꿈에도 찾아 갔나요?

헤인
(당황하며) 네?

종만
제가 딱 한번 이상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유상이랑 같이 밥 먹다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근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그 전날에 유상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본 날인데. 이상하죠.
이 자식이 제 꿈에 찾아왔었나봐요. 나하고 이놈은... 친하니까.. 알려주려고.

헤인
혹시 그날이... 3월 15일인가요?

종만
화이트데이 다음 날이니까... 맞아요. 3월 15일. 어떡해 아세요?

헤인
저한테도 찾아 온 적이 있었거든요.

종만
이 자식이 참... 깨어났을 때,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71. 헤인의 집

지현과 같이 티비를 보는 헤인.
지현은 재밌다며 박장 대소를 한다.

지현
야, 진짜 너무 웃긴다. 저기 휴지 좀.

헤인
어,

멍 때리다가, 옆에 있는 리모콘을 잡아 건내주는 헤인.
지현은 리모콘을 건네 받고는,

지현
아 뭐야,

헤인
(그제서야 정신차린 듯) 어? 뭐가?

지현
야... 너 요즘 다시 이상해..

헤인
이상하기는... 아니야. 나 지금 좀 괜찮아. (사이) 지현아, 너는 인연을 믿어?

지현
그런게 어디있어. 만나면 만나 지는거고, 만나지려 하면 만나게 21세기 인연이지.

헤인
너... 그 사람 기억나? 내가 예전에 꿈에서 만난 사람.

지현
그 한양서 김서방 찾기?

헤인
그, 오늘 그사람 만났다.

지현
뭐? 어디서?

헤인

병원에서. 교수님 문병갔다.

지현
인사했어? 그 사람도 너 기억해?

혜인
아니, 아직 인사도 못했어.

지현
야, 인사도 안하고 뭐했어! 아니 그냥 일단 몇대 패주지. 뭐하는 사람인데? 혹시 의사야?

혜인
아니, 그 사람 아파. 식물인간이래.

궁금해 하던 얼굴을 멈추고, 진지하게 혜인을 바라보던 지현.
혜인은 아무렇지 않게 티비를 보고 있다.

혜인
그래서 아직은 못 물어 봤어.
(멀쩡하게 지현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 안괜찮아. 처음에는 안괜찮으면 안되는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선, 안 괜찮은게 맞는 것 같아. 나 안괜찮아. 그래서 너무 다행이야.

지현이 혜인을 안아주자, 조심씩 울기 시작하는 혜인.
그러다가 엉엉, 목줄을 놓아 버린다.

72. 시간의 흐름

카페, 놀이동산, 아르바이트 모두 생기가 넘친다.

혜인 나레이션
그 뒤로도, 시간은 흘렀다.
나는 전 보다 더 이상해졌고,
운명을 믿기 시작했으며,

73. 유상의 병실

유상의 병실에 꽃을 갈아 주러 온 혜인,
시들어 버린 꽃을 버리고 새 꽃을 사다가
꽃병에 끼워 책상 위에 올려 놓는다.

혜인 나레이션
더 건강해졌다.

74. 사진관

헤인
감사합니다.

하고 사진을 받는다. 회전목마 사진이다. 흐뭇해 하며 유상의 병실로 향한다.

75. 유상의 병실.

밖에서 노크를 한 뒤에, 한 손에는 액자를 들고 온 헤인.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아 창문을 보고 있는 유상을 발견한다.
손에 있는 액자를 떨어트리는 헤인.
그리고 천천히 유상에게로 다가간다.

헤인
유상씨... ?

대답없이 계속 창밖을 보고 있는 유상.

헤인
유상씨, 저, 기억 안나요?

유상이 고개를 돌려 헤인을 본다.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

헤인 나레이션
감정 없는 차가운 눈빛에서 나는 알수 있었다.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구나.

헤인
(애써 괜찮은 듯, 눈물을 참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깨어 났으면.
언제 일어났어요? 요즘 자주 못 와서, 깨어 났는지 몰랐어요.

헤인은 떨어져 깨진 액자를 허겁지겁 줍는다.
그러다가 손가락이 베인다.

유상
누구세요?

헤인
...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냥... 유상씨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예요. 그냥 딱 한번... 그
냥 오늘 까지 딱 두번 우연히...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헤인. 유상은 그런 헤인을 감정없이 보고만 있다.

76. 시간이 흐른 뒤, 버스 안

등교중인 헤인.

버스 창가에 앉아 이슬 낀 창문 건너편을 본다.

헤인 나레이션

그 이후, 나는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그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엔 그 사람이 존재만 했으면 싶다가, 결국은 존재할까 겁을 냈다. 그리고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의 모든 인연은 우리를 헤어지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나 때문에 이 유없이 답답해 하거나, 가끔만 행복해하는 일은 처음부터 시작도 하게 하고싶지 않았다.

또 생각에 빠져 있다가, 정거장을 지나쳐 버리는 헤인.

서둘러 벨을 누른다.

77. 놀이공원 안.

헤인

통화, 지금 안으로 들어 왔어? 어디야?

일층인데?

순간 눈 앞에 보이는 유상. 회전목마의 사진을 찍고 있다.

유상은 사진의 앵글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은 헤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사진기 넘어

헤인을 바라본다.

헤인은 아주 천천히 유상에게 다가간다.

유상도 카메라를 놓고, 헤인을 마주 본다.

예전, 유상의 꿈속에서 헤인에게 회전 목마의 유래를 들려준 바로 그 장소다.

유상

이 사진, 그 쪽거 맞죠.

인쇄 된 회전 목마 사진을 헤인에게 내민다.

유상

그리고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헤인

없을 텐데....

유상

꿈 속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헤인

아...

유상
사람들이 내가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잤대요.

헤인
제가 기억이 나요?

유상
안나요. 그래서 답답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쪽이 기억이 안 나서 왜 답답한지.

헤인
(사이) 혹시... 벚꽃 싫어해요?

유상
아뇨.

헤인
그럼.. 꽃 가루 알레르기는요?

유상
없어요.

헤인
그럼, 4월에 여기 같이 다시 올래요?

유상
(헤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저기.. 원래 그런말은 남자가 먼저 하는거 아니에요?

유상의 대답을 들은 헤인은, 환하게 웃으며 무작정 유상에게 달려가 안긴다.
배경화면에는 회전목마가 예쁘게 돌아간다.

END

에필로그

몇년 전, 병원, 병실 안.

헤인 엄마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의사

할 수 있는 검사는 일단 전부 마쳤습니다. 뇌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안 일어나는지
는...

혜인 엄마

벌써 4개월 짜 잠만 자고 있어요.. 제발 우리 혜인이 좀 어떡해 해 주세요.

의사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혜인양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혜인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린다.

혜인의 등교 시간

혜인 나레이션

두 달째, 같은 날이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그 안에 혜인은 갈 곳을 잃은 채,
여기 저기 돌아다닌다.

혜인 나레이션

내가 죽은 건가...

사람들이 혜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간다.

행인1

죄송합니다.

혜인 나레이션

그건 아니구나...

계단을 올라가는 혜인.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 할머니 발견. 서둘러 할머니에게 다가간다.

혜인

할머니, 이리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아이고! 이거 무거워 아가씨!

혜인

괜찮아요. 힘이 남아 돌아서!

하고 할머니와 함께 집을 옮긴다.

헤인
이거 다 파시면 금방 부자 되시겠어요.

할머니
팔기는, 손주 놈 줄거야.

헤인
손주 놈이 이렇게 많이 먹어요?

할머니
많이 안먹어. 그래도 부족하면 안될 거 아니야.

헤인
부럽다... 우리 할머니는 이런거 한번도 안 해 주는데.
아.. 그나저나 이거 정말 무겁네요. 어떡해 다 들고 오셨네요.
이거는 아마 한 뭉치에 3키로는 하겠어요!

하며 들어 보인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는 찰나,
유상이 뒤에서 다가와 쓰러지는 헤인을 잡아준다.

유상
괜찮으세요?

헤인과 유상은 눈이 마주치고,
서로 왠지 모를 기류가 흐르면...

헤인의 눈은 유상의 얼굴을 뚜러져라 바라보다가
이내 화면일 정면으로 응시한다.

탭 로그 올라간다.

MARRY GO AROUND

END.